



다언어 국가, 스위스에서 배우는 언어교육

스위스는 다언어 국가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와 이웃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옛 라틴어에 가까운 로망슈어까지 공용 언어로 지정된 것만 4가지. 스위스 사람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공용어를 소화하고 있다. 여기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들이 다양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바람에 매번 놀란다. 내가 살고 있는 취리히의 공식 언어는 독일어다. 이웃과 독일어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도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지나가면 프랑스어로, 이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넨다. 심지어 그놈의 언어는 종종 포르투갈어까지 확장된다. 독일어가 서툰 나를 배려해 내게는 영어로 소통을 하는 것은 물론이다. 여러 언어가 이토록 가벼워지는 비결은 무엇일까, 스위스의 언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스위스에는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특별한 의사가 있다. 언어 발달에 있어서 장애 요소가 보일 경우, 언어 훈련 분야의 전문가인 로고페디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 지원이 된다. 마야의 유치원에서는 특정 국가에서 온 일부 친구들이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독일어 발음을 일대일로 교정 받고 있다. 어휘력은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지만 발음은 다르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로고페디에 다녀온다. 보통 유치원에서 생활하며 선생님이 필요성을 발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스위스에서는 여러 언어를 소화할 수 있는 기본 조건으로 하나같이 튼튼한 모국어를 꼽는다. 모국어는 논술형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과 창의력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취리히에서는 모든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토요일에 진행되는 한글학교도 있다. 한글학교에서 받은 결과는 아이들의 학교로 바로 보내져 성적에 반영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한다.

한편 아이들의 제2외국어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된다. 취리히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에 영어를, 5학년이 되면서부터는 프랑스어를 배운다. 차근차근 언어의 영역을 넓혀가는 교육이 인상적이다. 얼마 전에 다녀온 영국 여행에서 마야는 판매원, 경비원을 가리지 않고 커다란 목소리로 사방에 말을 걸고 다녔다. 취리히에서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도, 매일 보는 선생님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생기를 뽐 적이 없었다. 마야가 낯을 많이 가리는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의도하지 않은 독일어 조기교육이 내 아이를 주눅 들게 만들었나 싶어 많은 생각이 오간다.

글로벌 시대라고 한다.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요즘, 다중 언어를 유창하게 소화해내는 스위스 사람들의 언어교육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당신의 아이에게는 언제, 어떻게 새로운 언어를 소개해주고 싶은지 생각해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글·사진 이윤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프랑스인 남편 로홍 씨와 결혼해 유치원에 다니는 첫째 마야(6세), 무서울 것 없는 둘째 레아(3세)를 키우는 엄마.

남편을 호주 시드니에서 만나 일본 도쿄에서 신혼을 시작. 재작년 남편 로홍 씨가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현재 스위스 취리히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륙에 걸친 이사를 하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노출되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어떠한 변화에도 주눅 들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라며 행복한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다.